

제주대, 교육역량평가에서 ‘우수대학’ 선정

제주대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2011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교과부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사업을 관리, 운영한 유형별 상위 30% 대학에 주는 1억3000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제주대는 지방 중형 대학 유형(재학생 5000명 이상 10000명 미만 대학, 16개 대학 선정)에서 우수대학으

로 선정돼 이번 인센티브까지 합쳐 제주대의 교육역량강화사업비는 총 28억 2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성과평가 결과 제주대는 취업률을 제외한 자율성과지표에서 100% 이상을 달성했으며, 사업수행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

다. 이번 인센티브는 장학금 지급, 취업 및 학습 역량 강화 등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입된다. 또한 기상화회계 사업비 운용과 관련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투자에 쓰인다. 한편 대학본부는 지난 7월 발간한

‘2011년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실적보고서’에서 학부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SWOT 분석을 내놨다.

대학본부는 △국립대학으로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교수 학생 유치에 유리 △국내 대학 중 교원확보율이 매우 높음 △지역 내에서 확고한 인지도 확보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반면 약점으로는 △지역 거점대학 중 재정규모의 상대적 열세성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집중 투자에 한계 △

지역 내 유일 국립 종합대학이라는 독점적 위치로 치열한 경쟁의식 부족 △육지와 단절된 지역여건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국립대 중심의 지역거점대학 육성정책 △외국인의 도내 방문 및 투자확대 여건 조성 등을 기회로 꼽았으며 △대학간 무한경쟁체제의 확산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 △지방대 출신을 꺼리는 기업 풍토 등을 위험요소로 지목했다.

김명지 기자

대학 홈페이지 평가 ‘대체로 만족’

학과 홈페이지 관리와 디자인 등은 불만족

정보통신원, 지난달 8~24일 만족도 조사 결과

제주대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보통신원에 따르면 제주대 홈페이지 방문자에 한해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홈페이지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 학생 31명, 교직원 41명, 일반인 1명 등 73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홈페이지 접속속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21명 (29%), ‘만족한다’는 의견이 28명 (38%)에 달했다. 응답자의 67%가 ‘만족한다’에 응답해 접속속도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7명 (10%)은 ‘불만족’, 3명 (4%)은 ‘매우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화면구성 및 디자인에 있어서는

43명 (59%)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17명 (23%)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신속한 정보제공’에 있어서는 47명 (64%)이 만족한다고 응답해 대학 정보를 파악하는데 홈페이지가 적극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8명 (10%)은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한편 응답자들은 홈페이지 문제점으로 팝업창 업데이트가 늦고,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며, 학과 홈페이지에서 지난 자료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을 지적했다.

기초교육원, ‘우수리포터 공모전’ 오는 26일부터 접수

아라토론대회 ‘논제 공모전’은 11월 18일 마감

기초교육원(원장 현승환)에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정규교과목 수업에서 작성한 리포트를 대상으로 제4회 ‘우수 리포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2학기에 작성한 우수한 리포트를 선정해 인문사회·이공계열로 구분, 최우수 2명 상급 각

30만원, 우수 4명 각 20만원, 장려 6명 각 10만원, 파이널리스트 6명 등을 선정한다. 수상자 발표는 내년 1월 18일에 있다.

공모전에 출품할 리포트는 직접 기초교육원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iletnl@jejunu.ac.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초교육원은 제3회 아라토

론대회 ‘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기간은 지난 8월 시작해 오는 18일 자정까지이다. 공모방법은 논제를 기초교육원 웹메일 (iletnl@jejunu.ac.kr)로 보내면 된다. 공모내용에는 소속학과 및 학년, 이름 및 학번, 논제,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최우수 논제를 공모한 2명에게 5만원을, 우수논제를 제시한 4명에게는 3만원을 시상한다. 문의는 기초교육원 (064-754-2037)로 하면 된다.



“황금빛으로 물든 캠퍼스” 13일 생명자원과학대학 옆 길목에서 노랗게 물들은 은행나무 사이를 학생들이 걷고 있다. 김동현 기자

입시설명회 다채롭게 마련

전체 정원 77% 1789명 정시모집 선발



12일 해양과학대학 4호관 오션홀에서 열린 오행고등학교 입시설명회에서 홍보대사들이 학생들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장학제도·해외연수 등 소개

내달 22~27일 인터넷 접수

수능을 마치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입시설명회가 본격 시작된다.

2013학년도 정시모집 입시설명회가 12일 오행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또 지난 13일에는 제주일고 입시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입시설명회에서는 정시모집 주요사항과 전년도 입시분석 결과 등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시 정보를 제공한다. 또 학생들에게 우리대학을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 상영과 다양한 장학제도,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소개한다.

입시설명회는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입시설명회와 시외 일반고교를 대

상으로 하는 방문입시설명회로 이뤄진다. 고등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초청입시설명회는 14일 신성여고, 15일 중앙여고, 19일 대기고, 21일 제주여고, 22일 남녕고, 23일 사대부고, 26일 세화고 순으로 실시한다.

방문입시설명회는 시외 고교를 직접 방문해 입시정보와 우리 대학을 알리는 시간을 가진다. 오는 16일 서귀포여고를 시작으로 20일 한림고, 27일 서귀포고를 방문해 진행된다.

한편 2013학년도 정시모집을 통해 1789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체 입학 정원 2324명 중 77%에 해당하며, 나균 917명, 다균 818명 등이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받으며, 다음달 22일부터 27일까지 제주대 입학 홈페이지 (ibsi.jejunu.ac.kr)와 웨이웨어플라이 (uwayapply.com)에서 진행된다.

제주대 학생 홍보대사, 입시설명회 ‘인기 짝’

최근 제주대학교가 제주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제주대 학생 홍보대사’들이 우수 신입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남녀 13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입시설명회에서 특별공연을 통해 제

주대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는 것.

안무로 짜여진 특별공연 프로그램은 설명회 참석 학생들로 부터 가장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딱딱하게 느껴지는 설명회를 ‘축제의 장’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2013학년도 제1학기 제주대학교 교수초빙공고

1. 초빙분야 및 인원

대학(원)	학과(부)	전공	인원	채용분야	비고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	영어통사론	
해양과학대학	지구해양학과		1	기상학	
자연과학대학	생물학과		1	식물생태학	
	식품영양학과		1	임상영양학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1	건축실무 및 시공(산학협력중점교수)	
간호대학	간호학과		1	성인간호학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1	상담심리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1	법조실무	여성교수
			1	형법	
			1	내과학(심장학)	
			2	내과학(소화기위장관)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기금교수)		1	소아청소년과학(호흡기-알레르기)	
			1	영상의학(중재기술)	
계			14	13분야	

2. 지원 자격

※ 공통 및 분야별 지원 자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 지원 자격

- 1)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제주대학교 교수자격기준 준연구실적 환산을 산출 기준」에 의거 교수초빙지원서 마감일 현재 교육·연구경력 이 4년 이상인 자.

나. 분야별 지원 자격

- 1) 영어통사론분야, 상담심리분야, 형법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09. 12. 1.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 2) 기상학분야, 식물생태학분야, 임상영양학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09. 12. 1.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 3) 성인간호학 분야
-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최근 3년(2009. 12. 1.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 4) 법조실무분야(여성)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내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법조실무 경력이 임용예정일(2013년 3월 1일) 기준 5년 이상인 자.
- 5) 건축실무 및 시공 분야(산학협력중점교수)
-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아래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6) 내과학(심장학, 소화기위장관) 분야, 소아청소년과학(호흡기-알레르기)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지도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전임의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2009. 12. 1.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 7) 영상의학과학(중재기술) 분야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전공분야 지도전문의 자격이 있거나 전임의 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최근 3년(2009. 12. 1. ~지원서 접수일) 이내에 지원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국제저명, 국제전문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한 자.
- 다. 분야별 우대사항
1) 성인간호학 분야
- 시뮬레이션센터 교육 혹은 시뮬레이션센터 운영 경험 우대.
3. 임용조건 등
2013. 3. 1. 자 교육공무원으로 임용 예정이며, 임용직명, 임용기간, 임용조건 등은 관계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규정에 의한. 단, 기금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제주대학교병원) 비전임교원으로 임용 예정이며, 임용직명, 임용기간, 임용조건 등은 관계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규정에 의한.
- * 국립대학 교원은 2011년부터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여 임용됨
4. 심사기준 및 절차 : 본교 전임교원신규채용전형지침에 의한.
5. 제출서류
가. 채용분야 공통
1)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지원서(불임서식) 1부.
2) 학력 및 경력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원본 및 학위취 사본 각 1부.
3) 외국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 신고발증 반드시 첨부.
4) 경력증명서(교수초빙 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 원본 각 1부.
5) 연구실적물 목록, 연구실적물 공동발표자 목록 각 1부.
6) 석·박사학위 논문 및 심사용 연구실적물 각 1부.
논문을 게재일자, 권(권), 게재호, 페이지가 부여되어 출판된 학술지만을 인정함.

나. 채용분야별 제출서류

- 1) 성인간호학분야
- 임상 실무경력 증명서 원본 1부.
- 시뮬레이션센터 운영 등의 관련 경력 증명서 원본 1부.
- 2) 건축실무 및 시공 분야[산학협력중점교수]
- 산업체 경력증명서(근무부서와 직책이 명시되어야 함) 원본 1부.
- 최근 5년내 산학협력 실적물(특허등록 사본 및 연구개발과제 계약서 사본) 각 1부
- 자기소개서 및 향후 산학협력 계획서(자유서식으로 A4용지 3매이내) 각 1부
- 3) 법조실무분야
-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법조실무 경력증명서 1부.
- 4) 내과학(심장학, 소화기위장관) 분야, 소아청소년과학(호흡기-알레르기) 분야, 영상의학과학(중재기술) 분야
-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지도전문의 자격증 사본, 전임의 경력증명서 원본 중 1부.
- 5) 기타 교수 초빙공고에서 제출토록 하는 사항

6. 지원서(서류포함)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2. 11. 29. (목) ~ 12. 3. (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 제외)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나. 접수처 :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7. 기타사항(제주대학교 홈페이지 교수초빙공고 참조)

2012. 11. 5.

제 주 대 학 교 총 장

http://www.jejunu.ac.kr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사설

학생회 선거에 바란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선거운동으로 캠퍼스에 활기가 넘친다. 너무 소란스럽고 낭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 않지만, 선거라는 것이 일종의 축제고 또 축제라야 하는 점에서 본다면 이런 활기가 나쁘지않은 않다. 다만, 수업 진행과 연구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더욱 더 자제력을 발휘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싶다. 선거운동이 끝나도 지금까지 서로 신나게 인사하는 분위기를 지속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선거는 정말로 신나는 일이다. 정치와 권력의 대상으로 소외되어 있던 개개인들이 일약 정치와 권력의 주체로 떠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랜 투쟁과정을 거쳐 선거권을 부여 받았던 국민들, 노동자들, 여성들의 감격을 이런 기회에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 보통선거제가 일반화되어 이런 감격은 약해졌지만, 선거가 없어지는 것을 상정해 본다면 선거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대학가에서는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획득된 총장직선제 폐지 등으로 실망을 표하는 지적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코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선거제도도 민의를 완벽하게 대변하지 못한다.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예를 들어 70점, 50점으로 상대화될 수 있음에도 후보자 한 사람에게만 투표하게 되어 있는 것 하나만 보아도 선거제도의 한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선거에 출마하고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불합리성이 끼어드는 경우도 많다.

유권자의 선호 역시 정책과 같은 공적 관점이 아니라 연고나 감정 등에 좌우되는 일이 있고, 또 후보자들이 네거티브 전략 등으로 그런 경향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이런 불합리성이 강해지면 선거제에 대한 냉소와 선거제를 부정하려는 반민주적 움직임들도 나타나게 된다.

선거는 그 자체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 실제의 운영에서 합리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하나의 이상과 같은 것이다. 그 이상이 타락하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대학의 선거는 그래서 언제나 사회를 향하여 던지는 하나의 각성, 하나의 비판, 새로운 문제의식이라야 한다. 그래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이번 학생회 선거가 사회의 선거문화를 향하여 던지는 새로운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혹시 사회의 선거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중부발전(주), 2000만원 장학금 전달

2008년부터 해마다 지원
지원해 오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주) (대표이사 최명혁)은 지난 6일 공학교육혁신센터 트래트랙은 2007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중부발전이 필요로 하는 우수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중부발전(주)은 지난 2008년 5월 우리 대학 건물 14동에 100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형진 편집인·주간 김동윤 편집국장 김명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nu.ac.kr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주말교육가능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시정

↑

↓

← 제주여고

→ 학원

아라중

제주대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주는 자율성·개방성 겸비한 ‘글로벌’ 돼야”

지난 8일 윤경우 교수 ‘제주비전’ 강연
“제주는 동아시아 모든 네트워크의 중심”

“제주는 새로운 동아시아 역사의 전망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경상대학 2호관 강당에서 윤경우(국민대 국제학부) 교수가 ‘한·중 관계의 견인차 제주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윤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조항을 유심히 주목했다. 특별법 제2조에 보면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 조항으로 제주도 방서 중국 관광에 급증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생겨났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이 규정으로 외부인들에게 제 주도가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동아시아 평화지대로서 제주도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는 새로운 동아시아 역사의 전망을 열어주는 역할”이라며 “글로벌과 로컬이 중시되는 이른바 글로벌(glocal)시대에 지방의 자율성과 지역적 개방성을 촉진시키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주변 육지들에 의해 둘러싸인 지중해적 형태의 동아시아에서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점으로 ‘동아시아중해’(東亞地中海)의 핵심자 허브(hub)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의 모든 항로가 거쳐 갈 수밖에 없는 곳에 위치한 동아시아의 모든 네트워크의 중심이자 연결매개체가 되는 장소라는 것이다.

윤 교수는 “탐라 즉 제주가 과거 동 아시아 해양교류의 중심이었지만 조선조 이후 내륙사관과 반도사관으로 탐라국의 입지가 약하게 평가됐고 오늘날까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조선에 완전히 편입된 이후에도 제주도는 나름의

고유함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대륙에서 발산되는 중화 질서의 자기장(磁氣場) 속에 있던 한반도가 북방지향적인 성격이 농후했던 것과 달리 제주주는 해양 연결망을 통해 남방으로 활짝 개방돼 있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제주와 오키나와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그는 “오키나와를 일본 본토와의 관계에서만 사고할 수 없듯이 제주 또한 한반도 육지와와의 관계만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없는 열린 공간이었다”고 말했다. 제국 또는 국가의 권력의 밖에서 작동하는 생활권의 교류가 제주가 고려에 복속된 이후에도 여전했다는 것이다.

한편 윤경우(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국민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해 미국 Temple University에서 정



윤경우 교수가 ‘제주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강연은 사단법인 4월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의 후원으로 열렸다.

김명지 기자

국어 바꾸기 맞춤형 교육사업 전개

국어문화원 주관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은 제주도에 공공 기관의 언어 환경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국어 바꾸기 맞춤형 교육’ 사업을 전개한다.

교육 내용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 공문서 바로 쓰기, 보도자료 바로 쓰기, 안내판 문구 바

루기 등이다. 이 가운데 희망하는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

교육은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시간은 2시간이며, 2개 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수강자 20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문의=국어문화원(전화 064-754-2712)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섬평화문화 콜로키움’ 개최

하와이에서 해녀공연도 펼쳐

세계환경과 섬연구소(소장 고창훈)가 미국 하와이 일본문화센터에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제주해녀 미주(하와이)공연과 섬평화문화 콜로키움’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12 세계환경올림픽 정책의제 103 : 독특한 해양생태 파수꾼으로서의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 보호 M-108’ 선정을 기념하는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사업 일환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불멸’ 뮤지컬 제작기회를 얻고 내년 호주와 프랑스·이탈리아 공연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또 하와이대 법전원과 평화문화의 콜로키움을 연계 개최해 제주 4.3의 해결과 하와이 원주민 사건의 해결 논의와 평화문화를 공유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의’를 통한 사회치유 : 제주 4.3 비극’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창훈 교수는 ‘제주의 관용성 철학과 제4.3의 해결’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에릭 아바모토(하와이대) 교수는 ‘정의’를 통한 사회치유 하와이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백태웅(하와이대) 교수는 ‘정의’를 통한 사회치유 제주사례’, 구니히코 요시다(홋카이도대) 교수는 ‘아시아의 인권 탄압 사례의 배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제주지역 토론에는 양동운(제주 4.3도민연대) 대표와 김호천(연합뉴스 차장) 탐라사진사협회 회장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제주해녀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유산’ 시사회가 열렸으며 제주갈웃도 소개됐다. 이연심 무용단의 제주해녀 하와이공연은 ‘환상의 섬’을 주제로 해 태평무·부채춤·물허벅춤·해녀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고창훈 교수는 “이번 행사가 4.3 비극에 대해 화해와 관용의 철학을 세우고 평화의 섬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 온 과정과 의미를 국제공동교육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역번역대학원,
신입생 내달 3일까지 모집

통역번역대학원(원장 권영근)은 오는 21일부터 12월3일까지 201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한영과, 한독과, 한중과, 한일과 등 4개과며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22명, 특별전형(외국인) 및 학과별 인원 약간 명이다.

전형일정을 보면 △전공외국어 필기시험(번역·작문·청취) 및 면접 12월18일 △합격자 발표(http://gsi.jejunu.ac.kr/) 12월28일 △등록 2012년 1월30-2월1일 △추가 합격자 발표 2월5일이다.

△전공외국어 △전공외국어 점수 300점(번역·작문·청취 각 100점) △면접 100점 등 합계 400점이다.

문의는 통역번역대학원 행정실(064-754-2431, 2437)로 하면 된다.

여성거버넌스포럼 열려

6일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국제협력분과(분과장 박경란 통역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와 꿈의 국제교류센터 설치운영방안 및 차세대리더 멘토링’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주와 꿈의 교류센터 운영방안을 제안해 국제협력에 앞장서고 국제협력분과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1부 ‘차세대리더 멘토링’에서는 국제협력분과 김영숙 간사의 사회로 ‘국제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고찰(발표 오연정, 토론 박경란 교수)’, ‘중국어의 현재와 미래(발표 이지연, 토론 유소영 교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송현선(한중과) 교수의 사회로 카스 김(Kas Kim·호주 교포, 꿈주제 사업가)의 ‘제주와 꿈의 국제교류센터 설치운영방안’ 발표가 있었으며 3부 행사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바로잡습니다

10월 31일자 1면의 총학생회 선거 보도에서 2002년 이후 10년 만의 단독출마가 아니라 1994학년도가 마지막 단선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지식경제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여 풍력발전분야의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석사과정 0명, 박사과정 0명 (일반전형)
모집학과	·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학·연 협동과정 · 본 과정은 출신학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나 기계, 전기, 전자, 메카, 토목, 해양시스템, 지구해양과학 및 이와 유사학과 출신자 우대
원서접수	· 2012. 11. 20(화) 10:00 ~ 11. 23(금) 17:00 · 본교 입학안내 (http://ibsi.jejunu.ac.kr) · 유웨이 (http://www.uwayapply.com)
필기고사 및 면접시험	· 필기고사 : 2012. 12. 14(금) 10:00~ · 면접고사 : 2012. 12. 14(금) 15:00~
특전	· 인건비 월 석사 70만원, 박사 100만원선 지원 · 학회참가비 등 지원 · 성적우수자 해외대학 학점교류 파견 (※ 인건비 지급 기한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추가 지원 가능함)
선발방법	· 본 과정은 일반전형으로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합격자 선발(공인 영어성적 우수자 우대)
문의처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754-2045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행정실 754-4400 · 홈페이지 :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http://gwe.jejunu.ac.kr)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주임교수

♡ Sound Library Open ♡

Open Monday~Friday 9:00am~5:00pm

외국어교육원 (F.L.I) 2층

√ 편안하고 안정된 학습 환경과 시설

√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 시스템 구축

1 Speaking 위주 멀티미디어 영어 학습 시스템

2 English를 English로 학습하는 콘텐츠

3 Level Test(초급,중급,고급)를 통한 학습자의 수준 측정

4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통합 학습

5 Self Test 제공으로 성취도 확인 가능한 학습

6 음성인식 솔루션을 통한 발음교정 가능한 학습

제주대학교 외국어교육원
Foreign Language Institute
☎ (064)754-2291~2292, http://fli.jejunu.ac.kr

Copyright © 2012 Jeju National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Design: Jeju National University | Printed: November 14, 2012

취업을 **Job**아라

④ 취업지원 강화 나선 취업전략본부

‘취업준비 저학년일수록 좋다’… 취업연계 특화과정 확대 시급

취업전략본부는 2010년에 기존 직업능력개발원이 확대·개편한 조직이다.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개편됐다. 이와 함께 취업률을 공시하면서 대학의 취업률이 신입생 유지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취업전략본부로 격상시켰다.

취업전략본부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가

취업전략본부는 4개의 부서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잡 페어 등의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진로와 직업의 세계 등 취업교과목 개설, 해외 인턴십 및 취업동아리를 지원하는 취업지원팀, 현장실습·인턴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현장실습센터, 학생상담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있다.

취업전략본부는 인턴 매칭, 모의 입사지원 경연대회 등 주로 고학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MBTI 검사, 진로와 직업의 세계 교과목 운영 등 저학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담당한다. 또한 취업정보실 및 취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취업정보실은 대학본관 1층에 ‘잡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은 취업희망 학생들과 구인업체를 서로 이어주게끔 하는 것이다. 채용설명회는 대학본관 2층 취업정보 강의실에서 상시로 열리고 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현재 금융, 세무회계 등 5개 분야 180명의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한다. 아울러 4학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역량강화캠프, 취업지도 캠프, 1:1컨설팅 및 취업알선 등을 도와준다. 이와 함께 HR 아카데미(HRA)를 통해 기업 실무, 외부 강사 인성교육 특강도 관리한다. 이 밖에도 학생생활관 고시원, 연수, 취업 로드맵 설계, 취업동아리, 채용박람회 등을 지원한다.

또 취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견습직원반, 증권, 언론, 해외취업반, 영상, 마케팅, 무역·유통, 금융 등 8개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현재 295명이 가입돼 있다. 여대생의 직업의식 확립,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취업전략본부 아래 여대생커리어개발센

터를 뒤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여대생을 지원해주고 있다. 병영 체험 캠프, 두드림(심리검사) 프로그램, 직무능력 훈련, 여대생 진로탐색과 커리어설계 등의 취업교과목을 운영한다.

지난해 취업전략본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2424명이다. 취업교과목, 취업상담, 취업동아리 등 13개 분야 39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했다.

앞으로는 2013년 취업통계조사에 대비한 졸업(예정)자 집중 취업지도 컨설팅 운영, 청년 재학생 도내 기업 바로알기 프로그램, 하반기 산학협력 현장실습 및 취업연수 참가 희망자 수요조사, 여대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철승 취업지원팀장은 “취업 준비는 저학년 때부터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취업전략본부 등 학내 기구를 잘 이용하는 법을 알면 취업에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취업전략본부를 거쳐간 학생들은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며 “취업전략본부에 한 번 들려 상담이나 적성검사 등을 해보면 자신의 적성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취업전략본부를 바라보는 생각

학생들은 취업전략본부를 고학년 때 취업을 위해 방문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취업전략본부의 업무들이 고학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저학년 학생들은 취업전략본부에 도움을 받는 것은 나중에 일이라고 치부한다.

조승재(통신공학과 1)씨는 “아직 취업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다”며 “취업전략본부의 프로그램에 큰 관심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이 많은 이유는 취업이 고학년일 때 준비해야 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는 것이 원인이다. 이는 취업전략본부가 펴낸 학생생활연구에서도 드러난다.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나 할 예정인 시기는 4학년 1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5%가 3학년 1학기 이후라고 답했다.

지난해 39개 프로그램에 2424명 참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토록 지속 지원

저학년부터 빨리 준비하는 게 최선

공무원·공기업 선호 의식 바뀌어야

적성검사·상담부터 받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이처럼 재학생들이 취업전략본부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취업전략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교과목, 적성검사 등도 참여한 학생보다는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 훨씬 많았다. 이는 취업전략본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또 저학년들에게 ‘취업전략본부에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면 ‘아직 취업하려면 멀었는데 찾아가도 되냐’고 대답한다. 고학년들은 ‘자신의 힘으로 취업에 도전한 뒤 안되면 가는 곳이 취업전략본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처럼 취업전략본부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하는 학생들도 많다.

하지만 취업전략본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취업전략본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학생들에게 취업 상담, 취업기업체 인턴십 확대, 취업 정보 제공 강화 등 취업전략본부가 하는 업무에 대해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는 응답이 90%가 넘었다.

또 현재 가장 알고 싶은 정보에도 진로 및 취업정보가 제일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 밖에도 ‘대학에서 하고 싶은 일’, ‘대학 진학 이유’ 등의 질문에도 ‘취업준비’, ‘취업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제일 많았다.

이처럼 학생들은 취업전략본부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거나 프로그램 개설 시기를 잘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공기업 취업역량 레벨업 취업캠프’ 장면. 취업전략본부는 취업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으로 취업전략본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은 취업전략본부 프로그램 내실 강화다. 현재 취업전략본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다 보니 몇몇 프로그램은 제대로 기획되지 못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최하려다 보니 어떤 프로그램은 호응이 높고 도움이 되지만 어떤 프로그램은 호응이 낮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통해 취업에 한발짝 다가서야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한 이유’에도 30% 이상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 ‘진로 상담전문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0%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만큼 학생들은 대학에 취업을 위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취업전략본부가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방면으로 커리어를 쌓아 나가면서 학교를 다닌다. 자격증, 토익, 영어

회화 등 취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하지만 혼자 준비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채우기는 어렵다. 인성, 직장예절 등 보이지 않는 취업준비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취업전략본부의 시스템을 이용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학생들은 여학성적, 사회봉사, 면담실적, 정보화 능력 등 개인 스스로의 스펙을 쌓아가고 있다.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학생경력 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해 항목별 인증을 받아두는 습관을 1학년 때부터 길러야 한다.

취업전략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두려움을 갖는 학생들이 있다. 학내 기구는 학생들이 활용하라고 만든 것이다. 취업전략본부는 학생들이 취업에 한 발 내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자신이 취업에 강한 욕심이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한 번 들려 상담을 받아보고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이제라도 한 번 들려 적성검사, 상담 혹은 자신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최 시기 등을 물어보려 한 번 찾아가보자.

김동현 기자



제주대학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소리와 함께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의 명강사를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JDC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4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상의 틀 깨는 창조적 사고 가져야

우리 안에 담겨 있는 창의성 끌어내기

한 명 수 / SK커뮤니케이션즈 이사

옛 것을 볼 줄 알아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 예전에 나온 제품과 최신 제품의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20년 전에 쓰던 TV 리모컨과 최신의 스마트폰 모양이 비슷하다. 디터 랍스의 오디오를 보라. 60년 전에 만든 디자인이다. 그러나 이것을 촌스럽다고 얘기할 수 없다. 시간이 흘러 패턴이 돌고 돌아 촌스러워졌다 세련됐다 또 새로워지는 법이다.

수십 년 전 과학기술 포스터는 기술을 눈에 보이게끔 형상화 하는 디자인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의 포스터는 기술을 감추고 인간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 대세이다. 포스터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만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패턴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문제를 푸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전 세계 만화가들에게 기본서로 꼽히는 스콧 맥클라우드의 <만화의 이해>를 통해 삶의 패턴을 깨달았다. 보통의 사람들은 얇은 위기에 손을 놓는다. 어려움을 딛고 헤쳐 나가면서 먹고 살만해지면 거기서 사람들은 멈춰버린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원하는 거다. 이것을 ‘거룩한 불만족(Holy discontent)’이라고 한다. 거룩한 불만족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닐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익숙함, 안도감이다. 사람들은 흔히 윤기가 흐르는 사과의 겉표면에 끌린다. 나 역시도 디자이너가 멋있어 보여서 이 일을 시작했다. 속살에 파고들어 씨앗까지 가가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인간의 게으름은 무섭다.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안도감이 들면 그만두고 만다.

틀은 질서를 부여하는 힘이 있지만 생각의 크기를 가둬놓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틀을 깨기 위해 ‘말랑말랑 이론’을 생각해 냈다. 인간이 태어나던 때는 말랑말랑하다. 부모는 아이를 보면서 ‘뭐가 될까’, ‘어떻게 클까’ 궁금하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틀에 의해 견고해지면서 결국 로봇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틀을 깨기 위해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의식이 있다. 대기업에서 창의성을 잃지 않으려면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 직원들의 성과를 칭찬할 때 책상 위에 올려서 상장을 준다. 이같은 행동을 하는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지난 1989년에 나온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인상 깊은 장면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다. 주인공인 로빈 윌리엄스가 책상에 올라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땐 책상 위에 올라가라. 사물을 다른 각도로 보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한다. 두려움이 아무것도 못 보게 한다. ‘남들의 이목이 무서워서’, ‘속된 말로 얼굴 팔려서’ 높은 곳에서 보지 못하고 낮은데 머무르게 한다.

1997년부터 디자이너 일을 시작했으니, 올해로 딱 15년이 됐다. 30대 초반까지는 유명해지기 위해, 잘 살기 위해 무언가를 디자인했다. 매일 밤을 새고 기계처럼 일하며 허무함이란 게 밀려들었다. ‘대체 내가 하는 게 뭘까’라고 스스로 자문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일본 유명 가구디자이너의 인터뷰 기사를 나의 생각을 뒤바꿨다. 그 디자이너는 자신의 작업을 ‘의자를 디자인 하는 것이 아니라 앉는 것을 디자인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앉는 것’과 ‘의자’는 틀이 다르다. ‘의자 한 번 만들어 볼래?’ 듣는 순간 내가 봐왔던 의자 밖에 떠올릴지 못했다. 그러나 앉는 것을 만들려고 하면 온갖 모양이 다 나오게 된다. 당시 웹디자인을 열심히 했었다. 레이어 고치고, 색깔 조합하고, 컷피 문구를 넣



“익숙함·편안함 같은 일상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질문이

많아야 한다. 질문을 하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는 일이 전부였다. 이 기사를 접한 후 나는 ‘웹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을 먹었다.

남들은 결과만을 놓고 평가를 내리지만 나는 내 작업의 정의를 다르게 내린다. 누구도 뺏아가지 못할 나만의 즐거움이다. ‘디자인 경영’이라는 단어가 싫다. 디자인 경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일하면 누군가를 따라가게 돼 있다. 스스로 정의를 내리면 누군가가 평가를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상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질문이 많아야 한다. 익숙함, 편안함,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깨트리는 질문을 계속 해야 한다. 질문을 하다 보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여기에 덧붙여 갖춰야 할 태도는 ‘탐구와 관찰’이다. 기본이 없으면 파격이라는 걸 할 수 없다.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스타일에 의한 스타일, 형식을 위한 형식을 고집한다면 가버워진다. 그러나 본질을 꿰뚫고 있으면 스타일은 알아서 따라온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탐구와 관찰이다.

통즉불통(通即不痛)… ‘통’하면 아프지 않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라

최 일 구 / MBC 앵커

어릴 적 내 꿈은 소설가와 가수였다. 세 번째 꿈꿨던 것이 기자였다. 신문을 보는 데 알람에 ‘본사 아무개 기자가 워싱턴 기자로 발령 났다’는 기사를 읽고서 ‘기자가 된다면 해외 취제도 다니고 재미있겠다’며 막연하게 기사를 꿈꾸게 됐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총장께서 자기 꿈을 이야기 할 사람은 손을 들어 보라고 했다. 처음에 손들기가 쑥스러워 두 번째로 손을 번쩍 들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자가 꿈입니다’라고 말을 했다. 당시 내 생각을 말한 이유는 ‘처음 대학생기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최일구라는 녀석은 기자가 된다고 하더라’고 각인시키면서도 한 편으로 내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였다.

병역을 마치고, 4학년 2학기가 된 1985년부터 언론사 시험을 치렀다. 어느 곳 하나 합격하는 곳이 없었다. 그해 마지막 MBC에 최종합격해 보도국 기자로 입사했다. 기자가 되고 나서 ‘앵커도 한 번 해보자’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 기자 중에서 열 명 정도를 추려 오디션을 봤다. 생방송이 제일 두려워 한 달 동안 홀로 연습을 했다. 2003년 주말 뉴스 앵커로 발탁됐다. 첫 날 방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 투표로 재선임을 받겠다는 중대발표가 있던 날인데 말을 더듬고 말았다. 뉴스를 진행하면서 방송사고가 많았다. 두 달 쯤 되니 안정이 됐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변화였다. ‘뉴스는 왜 변하지 못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딱딱하고 근엄했던 기존의 앵커 스타일을 깨고, 대화형 문장을 사용하고 통쾌한 논평을 가미해 새로운 앵커 스타일을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첫 번째는 ‘시청자에게 말을 걸어보자’는 것이었다. 보통 신문은 문어체, 방송은 구어체라고 한다. 그런데 뉴스를 진행하는

걸 보면 ‘다, 나, 까’로 끝나는 딱딱하고 근엄한 말을 사용한다. 친구들이나 선생님과 이야기 할 때는 ‘그랬잖아요’라는 일상어를 많이 쓰는 법이다. 이 같은 형식 파괴는 뉴스에 관심이 없는 젊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큰 몫을 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중점을 둔 것은 ‘시청자와 공감하기’였다. 뉴스진행이 갖는 특징은 파격과 솔직, 통쾌 등으로 집약된다. 뉴스앵커는 근엄하고 진지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친근한 대화체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멘트를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2004년 불량판 두 파동이 났을 때 시장 골목에서 성실히 장사하는 손만두도 장사가 안됐다. 만두집 주인들도 자녀들을 키울 텐데 저렇게 장사가 안 되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쓰레기만두 파동으로 손만두집들까지 황청거립니다. 만두의 욕심이 가려지고 있으니 이제 만두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저녁에 만두 시켜먹었습시다”는 멘트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세 번째는 ‘유머 있는 뉴스 전달하기’다. 지난 2010년 서울대공원을 탈출한 말레이 곰에 대한 소식을 전하다 제치 있는 멘트를 날렸다. “저는 말레이 곰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꾸 도망 다니지 말래이”. 최근까지도 포털 사이트에서 최일구 연관검색어로 ‘말레이 곰’이 불을 점도록 화자됐다. 이로 ‘말레이 곰’이 불을 점도록 화자됐다. 뉴스에서도 충분히 언어유희를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뉴스를 보면서 웃으면 왜 안 돼’라는 생각이 들었다. 편의점에 가면 3000원짜리 유머 책을 파는데 그것을 사보는 게 취미다. 하지만 ‘뉴스가 장난이나는 비판부터 ‘이 정도 농담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반응 등 시청자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나의 좌우명은 ‘인부지아불은 불역군자호’(人不知而不慚不亦君子乎)이다.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라는 공자의 말씀을 새기면서 언젠가는 시청자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라는 말을 새기면서

시청자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궁정적으로 소통하자’이다. 나는 수많은 동물 중에서 돼지만큼 긍정적인 동물이 없다고 생각한다. ‘되지 되지’하면 안되는 게 없다.

사람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불통즉통 통즉불통(不通信 通則不痛)이라 하여 ‘기운의 소통이 정제되면 통증이 생기고, 소통이 잘되면 아프지 않다’고 했다. 그만큼 몸과 외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사람의 신체가 그러하듯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소통을 잘해야 한다. 오늘날 사라져야 할 불통문화 세 가지로 ‘권위주의’, ‘유머 부재’, ‘남존여비’를 꼽을 수 있다.

20세기엔 수직적인 리더십이 통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따라와’ 이런 식이다. 21세기는 그렇지 않다. 리더를 따라갈 때 본받을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따른다. 앵커가 되면서 권위주의를 내려놓고자 했다. 부국장으로서, 뉴스 앵커로서의 권위에 순응했다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뿌잉뿌잉’ 예고를 선보이지도 않았을 것이다.

경관차원 넘어 인문학 토대에서 이상향으로 재창조

학술기고 조선 유학자가 동경했던 영주산(瀛洲山)



김치안
철학과 교수

제주에는 천혜의 자연경관만 있는가

유네스코 환경 분야 인증 3관왕은 물론, 논란이 많았던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제주를 말할 때면 자연경관적 측면이 늘 부각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경관’으로 포장된 제주를 보면서 그것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물론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사는 사람은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라는 경탄을 자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연경관에서 눈을 돌리는 순간 ‘유배의 척박한 땅’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이 펼쳐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자연경관을 강조하다보니 오히려 제주적인 것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짧은 글에서는 조선의 지식인이었던 성리학자들이 제주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유학자들이 산으로 간 까닭은

고대에는 자연이 인간 삶의 장(場)이 된다는 점에서 신성(神聖)을 가지고 있거나, 인간에 의해 어지럽혀진 세계질서를 인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와 대상, 그리고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번덕이 삼하고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나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싶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자연을 찾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행위는 본래 가지고 있던 생명력이나 신성함을 회복한다는 것을 뜻한다.

길을 떠난다는 것에 해당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유람(遊覽)은 “주로 명승지나 경치 좋은 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함으로써 ‘체정심한(體靜心閑)’의 즐거움을 누리는 행위”이다. 그런데 ‘몸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한가롭게 한다는 것’은 행위주체의 면에서는 ‘휴식’을 의미하지만, 관계적 차원에서 말한다면 (1) 길을 나선 자기 자신과 소통하고, (2) 길에 함께 나선 지기(知己)와 소통하며, (3) 길 이딘가에 머물면서 그곳에 있는 누군가와 소통하고, (4) 길 이딘가에서 만나는 자연과 소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관광이 아닌 ‘소통’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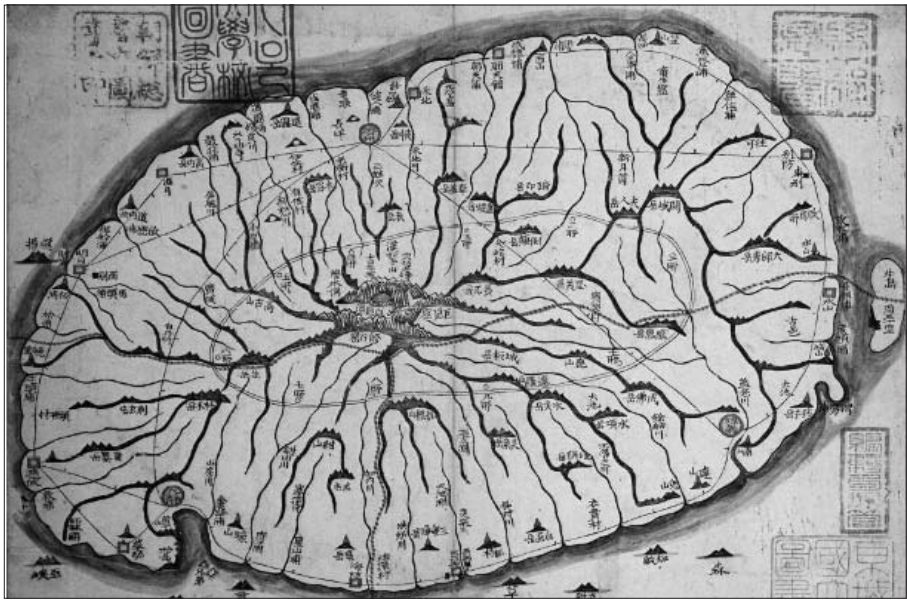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유람(遊覽)의 풍조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17세기 후반이다. 이 때 유람의 풍조가 확산된 것은 ‘한국 중세사회의 해체’에 직면해서 내적으로는 변하지 않는 유가적(儒家的) 질서를 재확립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요청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전쟁을 통해 주변국과의 문화교류가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려거나 반대로 도피하려는 지식인들은 모두 산(山)이 지닌 내재적 의미를 탐미하고, 그 계기를 통해서 자신을 수양하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이 시기에는 다양한 ‘유산기(遊山記)’가 나왔는데, 그곳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도 자기 기록들을 통해 그곳을 유람하는 체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유람방식을 와유(臥遊)라고 한다.

영주산(瀛洲山)의 유래와 공간적 특징

본래 영주산(瀛洲山)은 봉래산(蓬萊山), 방장산(方丈山)과 함께 삼신산(三神山)으로 불렸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에 따르면 사람들이 삼신산을 찾기 시작한 것은 전국시대부터라고 한다. 이때 중국은 제후들이 패권을 다투는 크고 작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백성들과 지식인은 물론 전쟁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제후들조차 이상향으로서 삼신산을 동경했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기록에 따르면 삼신산은 중국 고대의 전설적 인물인 복희씨(伏羲氏)와 신농씨(神農氏) 이전부터 있었고, 본래는 다섯 개였으나 대여(岱輿)와 원교(員峯) 두 산이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세 개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다. 본래 있던 자리는 중국의 산둥(山東) 반도와 요동반도 사이에 있는 발해(渤海) 한 가운데 또는 동쪽이다. 그리고 이곳의 위치상 특징은 배를 접안하기 힘들 정도로 이상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서,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듯이 보인다. 이곳의 건물은 금(金)과 옥(玉)으로 지어져 있고, 모든 것들은 백색이며, 사람들은 거인이다. 이 기록에 근거해서 중국의 동쪽 바다 건너에 있는 우리나라의 변산(邊山)이나 한라산이 영주산이라는 속설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전국시대의 이 이상향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있다는 속설에 대해서 조선 유학자들은 중국의 정치가들이 조작한 것으로 보아 비판하였다. 이런 비판들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었다.



모리츠 코르넬리스 에셔 (Maurits Cornelis Escher, 1898-1972)의 <Drawing Hands(1948)>

물론 이와는 반대로 「사기」를 비롯한 중국의 기록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금강산(金剛山; 봉래산)과 지리산(智異山; 방장산), 한라산(漢拿山; 영주산)이 중국의 이상향이라고 본 조선 유학자들도 있었다. 어느 쪽이 되었건 전국시대에 나온 도교의 이상향이 조선시대 이 땅에서 이 시기에 새롭게 주목되었다는 점은 이즈음에 우리가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 유학자가 선경으로 인식한 영주십경

우리나라에서 제4기 화산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제주는 낯선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고려시대 이후로 이 자연경관의 낯설음은 삼신산의 전설을 연상시키는 한라산(漢拿山)과 더불어, 제주도를 이상향인 영주(瀛洲)로 인식하는 요인이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1950m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인 한라산에는 ‘은하를 잡아당길 만한 높은 산’이라는 이름 외에도 ‘높고 둥글며, 봉우리마다 평평하다’라는 뜻을 가진 원산(圓山), 또는 두무악(頭無岳)이라는 이름이 있다.

은하를 끌어당길 만한 높은 산이면서도, 그 봉우리가 둥글고 평평하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조화롭지 못한 형상이다. 하지만 우거진 숲, 그리고 기암괴석과 천형만학(千形萬壑)이 조화를 이루듯이, 한라산은 그 자체로도 높으면서도 평평하다는 두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조선 유학자들은 사실이 어떻든 한라산을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이상향인 영주산(瀛洲山)으로 부를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인문학적 시공간의 재발견과 재창조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조선 유학자들이 한라산을 이상향

인 영주산(瀛洲山)으로 부른 것은 그 자연경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당시 유배의 땅이었던 제주를 이상향으로 재창조하고, 그것의 공간과 시간적 이미지를 인문학적 토대 위에 재구축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매계(梅溪) 이한우(李漢雨)의 「영주십경시(瀛洲十景詩)」인데, 중국에서 주로 절경을 뜻할 때 사방(四方)과 사우(四隅)를 합친 팔경(八景)을 손꼽는 데 비해 여기에 상하(上下)를 더해十方(十方)으로, 곧 모든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제주, 인문학적 재발견이 필요하다

매계를 비롯한 조선 유학자들의 ‘영주십경’은 요점말로 하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제주의 모든 절경’을 뜻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제주는 낯선 공간이면서 동시에 그 리움과 위기지학(爲己之學)의 낯익은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낯설음과 낯익은 때문에 우리는 제주에서 그야말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인문학적 시간과 공간을 재발견할 수 있다. 본래 여행은 익숙한 앞(techné)에서 거리 띄우기를 전제로 한 관조하는 앞(theoria)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화된다.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해 상대적 관점의 해아림을 통해서 낯설음을 극복한 경지로 우리를 이끈다.

우리들은 여행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흠뻑하면서(散種), ‘두 손이 서로를 그리고 있는’에서의 그림처럼 ‘여행하는 나와 그곳에 본래 있던 타자’가 서로 관계 맺게 된다. 이 점에서 지금 여기 우리의 제주는 더 이상 인문학적 공간으로서의 생명력을 온통 빼앗겨 박제된 채로 관망을 기다리는 전시공간이 아니라, 인문학적 씨줄과 날줄을 더 촘촘하게 짜 넣은 선,그물망의 삶이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재발견되어야 한다.

권하고 싶은 책

자연의 원리에 의한 상처의 치유와 회복

『다들 어디로 갔을까』(계수나무, 2010)는 현길언 작가가 비교적 최근에 발표한 소년소설 작품이다. 그는 이전에도 『전쟁놀이』, 『그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 『못자국』의 소년소설 3부작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소설은 규명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겪게 되는 4·3과 삶의 이야기를 다룬 일종의 성장소설이다.

현길언은 지속적으로 4·3을 소재로 한 작품을 다루는 대표적인 제주 출신의 작가이다. 등단 초기에서부터 4·3관련 소설을 써온 그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면서 지금까지도 4·3 관련 작품을 다수 발표하고 있다. 「다들 어디로 갔을까」는 그의 어린 시절 체험이 녹아 있는 작품이다.

현길언은 4·3을 직접 체험하였다. 그의 4·3체험은 그의 작품에 지속적으로 부각되어 나타난다. 그의 4·3소설은 자신의 체험의 의미를 묻고 확인하고 반추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는 초창기에 가족사를 중심으로 4·3의 비극성과 상처를 다루었으며, 이후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묻기도 하였다. 그리고 장편소설을 통해 4·3에 대한 총체적 모습을 그리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제 그는 소년소설의 형식으로 4·3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있다.

「다들 어디로 갔을까」는 오랜 세월 동안의 작업을 거친 끝에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 시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 작가의 혼이 담겨 있는 수작이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삶의 체험과 기억의 아픔, 그 가운데에서도 버릴 수 없었던 꿈을 여기에 모두 담았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공들여 썼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작품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그의 4·3소설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어린 아이의 시점으로 쓴 이 소설에서는 그 당시 벌어졌던 사건들을 담담히 묘사한다.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한 묘사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견디는 아이의 모습이 슬픔의 비극성을 더한다. 이 소설의 지배적인 정서는 슬픔이다. 이전의 그의 소설에서 보였던 분노와 증오는 사라지고 슬픔이 그 자리를 메운다.

슬픔은 어른이나 아이나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다. 그러나 아이는 위로 받



현길언 지음
「다들 어디로 갔을까」

는다. 그의 곁에는 어머니와 배와 바다 그리고 함께하는 동물들이 있다. 아이는 소달구지를 이끌고 어머니와 함께 불타 없어진 고향 마을로 돌아온다. 예전의 집터는 온통 잡초로 뒤덮여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는 희망을 발견한다.

“어머니! 내가 소리를 질렀다. 봉숭아 꽃모종이 그 잡초 더미 아래서 돌아오고 있었다. 무슨 꽃인지 이름 모를 작은 모종들도 썩어 타서 떡잎을 한두 개씩 달고 나오고 있었다.” 아이는 만발해 있는 꽃들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 그것은 고향이 주는 힘이다.

이렇듯 「다들 어디로 갔을까」는 규명이라는 규명이라는 가족들이 4·3을 겪는 이야기이다. 4·3에 대한 분노와 증오는 점차 사라지고 슬픔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아이는 자연에 의지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규명의 모습이 작가 현길언의 지금의 내면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는 4·3체험 일제대의 작가로서 4·3의 증언과 고발이라는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한평생을 4·3과 씨름하고 난 그에게 4·3은 이제 슬픔으로 담담히 수용하게 된 듯하다.

그는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포용할 수 있는 자연, 생명 그리고 고향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이다. 역사와 삶이 자연의 일부인 만큼, 자연과 생명의 원리는 삶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양철수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STS 과학문화 시사칼럼

이 칼럼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후원으로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에서 기획 운영합니다. STS연구센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ts.jeju.ac.kr>), 트위터(<http://twitter.com/jejusts>), 페이스북(<http://facebook.com/jejusts>).

인터넷을 희망의 플랫폼으로



최정혜
다움커뮤니케이션
지역협력담당 실장

올해 초 제주대 옆으로 이사는 다음 본사 스페이스닷원을 방문하는 분들은 노트북을 들고 있는 커다란 돌하르방을 만나게 된다. 만들어진 지 어느덧 5년이 되어 제주 다음의 상징이 된 이 돌하르방의 이름은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이다.

단순히 길소스 뿐 아니라 daumharbang이라는 이메일과 홈페이지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제주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사연들을 듣고 희망을 나누는 착한 일을 하는 돌하르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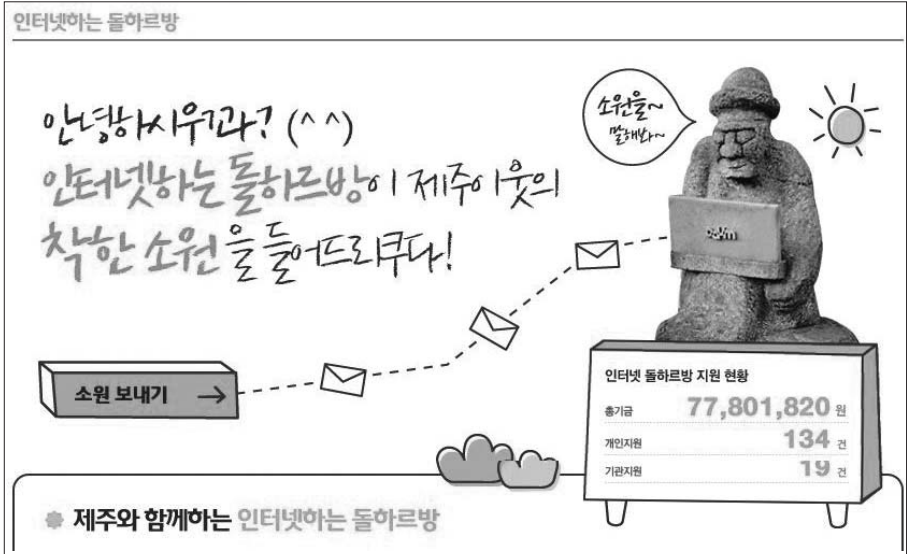
그 동안 이 돌하르방에게 사연을 보냈던 분들을 살펴보면, 요리와 미용에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피아노를 배우고 싶지만 가정형편으로 고민하는 단짝친구에게 값싼 선물을 주고 싶은 여중생, 지체장애인들이에게 탁구의 즐거움을 주고 싶은 장애인복지관 선생님 등 매우 다양하다.

사연 하나하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살피고 도움을 주기 위해 마음을 쓰는 이들이 제주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잘 전달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음(인터넷)과 제주(돌하르방)를 연결한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이 2008년에 시작되었다.

네트즌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제주 이웃의 사연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이 사연들은 다음과 제주공동모금회의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후원을 진행하며, 후원 결과 역시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은 다음이 직접 기부하는 방식이지만, 네티즌들이 직접 모금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기부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바로 온라인 모금이다. 다음과 같은 인터넷 회사뿐 아니라 많은 비영리기관(NPO)들도 저마다 특색 있는 온라인 모금을 통해 네티즌과 소통하고 있다.

다음의 네티즌 참여 온라인 모금인 ‘Daum 희망해’의 경우, 현금 결제 기부뿐 아니라 댓글, 카페스킨 등 클릭만으로 기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고, 우리이웃을 직접 돕는 기부 외에 글로벌, 환경, 교육, 역사 등 공익 이슈에 대한 모금도 온라인 상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웹 이미지(<http://hope.daum.net/daumharbang>)

널리 알려진 희망해의 공익 모금 사례로는 7만6천여명이 참여한 뉴유타임즈 독도 광고 모금, 2만5천여명이 참여한 일본지진 긴급구호기금 모금 등이 있다. 공익 모금의 진행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가 활발히 결합될 경우 단순히 모금액이 늘어날 뿐 아니라 이슈의 확산을 촉진시켜 일종의 캠페인처럼 발전되기도 한다.

그래서 특정 이슈에 대한 관심이 기부로 이어지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점차 온라인 모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온라인 모금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의 즐거움 변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또한 온라인 모금은 웹 2.0 시대의 참여, 개방, 공유라는 가치를 의미 있게 구현한 온

라인 플랫폼이기도 하다. 의견, 경험, 정보를 나누고 사람들간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이에 대하여 개인들의 따뜻한 손길을 온라인에서 모아 오프라인으로 구현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로 이해하고 상상력을 더한다면, 앞으로 온라인 모금과 같이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멋진 다리들을 더 만들어낼 수 있고 인터넷을 희망의 플랫폼으로 가꾸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하는 돌하르방 역시 네티즌 참여형 지역공헌 모델로 계속 발전시켜 제주 지역사회의 든든한 희망 수호자의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한다.

제32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개교 제60주년과 창간 제58주년을 맞이하여 제32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공모합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3. 유의사항 : A4용지 10~30매 내외(이미 발표된 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 CD로 동시 제출할 것. 제출된 원고는 반환 안 됨.
4. 접수마감일시 : 2012년 12월 10일(월) 18:00까지
5. 시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6.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 (☎754-2278·취업전략본부 건물 3층)
7. 발표 : 제주대신문 2013년 신년특집호 (2013년 1월 1일 발행 예정)

언론미디어센터 제주대신문

지오파크 후속사업 ‘감감’ … 관리체계·콘텐츠 개발 시급

<Geopark>

기고 제주 글로벌 지오파크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소고



김 범 훈
지리교육진흥
박사과정

I. 들어가며

2010년 10월 제주 화산섬이 유네스코 Global Geopark로 인증을 받은 지 2년을 맞고 있다. 인증 당시 유네스코와 약속한 대로 지속가능성을 키우면서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있을까.

그러나 제주도정은 Global Geopark 인증 2개월 뒤부터 지난 1년 내내 ‘New7 Wonders of Nature’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올인하였다. 상대적으로 Geopark에 대한 지원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개발방안인 Geotourism 프로그램 실현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 등은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유네스코 Global Geoparks Network(GGN)은 4년마다 Geopark 활동을 재평가하여 후속조치가 미흡할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엔 그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이에 본 소고(小考)는 Geopark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해외의 수범사례 등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제주 Global Geopark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II. 왜 Global Geopark인가

Global Geopark는 지형 및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고 희귀하며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으로써 보존과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이 활발히 이뤄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곳을 말한다. 이 외에도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가치를 지닌 곳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적 흐름 두 가지다. 하나는 지속가능한 개발로 특화된 새로운 관광패러다임인 Geotourism이 Geopark의 핵심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Geotourism은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유산 자원을 바탕으로 감상과 자연보존 교육, 문화적 이해, 지역이익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Bottom-Up’ 방식으로 기획과 실행과정에 참여하여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Global Geopark는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네스코가 지원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과 국가까지 브랜드 가치가 높아

지고 경제적 파급효과로 기대를 모은다. Global Geopark가 21세기 자연보존과 이용을 조화시킨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하겠다.

GGN 회원은 현재 세계 26개국 90개소이다. GGN 가입을 희망하는 지역은 국내 50여 곳과 해외 500여 곳에 이른다.

III. 제주 Global Geopark 인증 2년의 평가

1. 제주도 차원

그동안 제주도정은 세계자연유산, Geopark 등 다분화 되었던 관리조직을 효율성 차원에서 세계자연유산관리단으로 일원화하여 안내관 정비, 관람로 추가설치, Geosite(대표명소) 트레킹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대표 명소인 수월봉을 중심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국제트레일 행사를 개최하여 명품 관광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2013년 제3차 아시아·태평양 Geopark(APGN) 총회 제주유치 성공에 이어 세계총회인 2016년 제7차 GGN총회 유치에도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월봉 국제트레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구, 교육, 관광, 홍보 등 융복합 콘텐츠 개발은 부진한 채 단편적이다. 이를 입증하듯 제주도가 지난 6-8월 Geopark 대표 명소 9곳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 7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관광객 2명 가운데 1명 꼴로 Geopark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제주도정은 내년 APGN 제주총회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2014년 제주 Global Geopark의 재평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2. 중앙 차원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6월 Geopark 운영관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개정 법률을 만든 후에도 국내 최초의 Geopark 활성화를 위한 후속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다.

올해도 그랬지만 정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내년도 Geopark 국비지원 10억 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APGN 총회준비, 대표명소 추가인증 등 내년 Geopark 관련 예산 20억원은 모두 지방비로 부담해야할 판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계획대로의 정상 추진은 불가능하다.

또한 개정된 자연공원법도 일부 문제가 있다. Geotourism과 지역주민의 네트워크 연계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IV. 해외 Global Geopark 사례

1. 브라질의 Araripe Geopark



브라질의 Araripe Geopark의 지형 및 지질 해설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석 퇴적지형 가운데 하나이다. 다양한 전문 해설과정을 통해 지역의 유산들을 보존하고 홍보하고 있다. 모두 67개의 지형 및 지질 설명 패널(panel)을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지리과학이 지역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과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2. 포르투갈의 Naturtejo Geopark

지형 지질학적 역동성을 나타내는 16개의 기념물과 사이트를 통해 Geoproduct를 알리고 있다. 공원은 지역 기업에게 투자를 돌우고 Georestaurant, Geobakery, Geoguesthouse 등이 세계 최초로 문을 열어 Geotourist 유치 전략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3. 중국의 Hong Kong Geopark

세계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이룩한 첫 번째 Geopark로 Geotourism은 도시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홍콩의 독특한 도시적 상황에 맞도록 해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1단계 초보적 수준에서부터 5단계의 전문가 수준까지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4. 말레이시아의 Langkawi Geopark

말레이시아 반도의 북서쪽 끝단에 위치한 랑카위는 제주도처럼 섬 전체가 Global Geopark다. 각 대표명소마다 랜드마크가 존재한다. 특히 랑카위 개발공사와 Global Geopark는 지역 농어민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활발히 전개 중이다.

V. 맺으며

해외 사례가 제주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관련 법·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보호범위와 보호주체를 명시하여 상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구축이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개발로 지역주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은 제주도가 배워야할 콘텐츠들이다. 관리체계의 전문화와 Geotourism 콘텐츠 개발을 서둘

러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제주도정은 GGN의 Geopark 재평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역주민과 기업체간 창조적 파트너쉽 구축, 이를 통한 주민소득 창출 방안 개발 등 Geopark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유네스코 자연환경분야 3관왕인 제주도가 국가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註. 1) 본 소고는 <김범훈, 2011, 제주 세계지질공원 1주년 평가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연구, 제주발전포럼, 제3호, 제주발전연구원>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

2) Global Geopark의 한국어 표기 문제 : 한국과 중국은 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Geopark를 ‘지질공원’으로 공식 표기하고 있음. Global Geopark 역시 ‘세계지질공원’으로 표기되고 있음. 그러나 Geopark의 한국어 표기에 대한 이론이 적지 않음. 김창환(강원대 사범대 지리교육과 교수) 등은 ①Geopark는 세계지리학회와 세계지질학연합회의 상호협력관례로 출발한 점, ②Geopark의 활동영역이 지역의 지형·지질을 비롯한 자연물의 보전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③Geopark의 중요한 요소인 ‘지질학적 형상(Geological features)’이란 표현 때문에 Geopark를 ‘지질공원’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유네스코의 ‘지질학적 형상’의 가이드라인은 대표적인 암석과 노두, 광물자원, 화석, 지형과 경관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 Geopark의 한국어 표기는 ‘지오파크’로 하거나 ‘지리공원’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따라서 Global Geopark 역시 ‘세계 지오파크’, ‘세계지리공원’ 등으로 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Global Geopark 인증 추진 때부터 대한지질학회의 지원을 받은 제주도는 Geopark의 명칭을 ‘지질공원’으로 공식화, 그러나 유럽은 Geopark가 지형 및 지질 분야를 망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때 ‘지질공원’으로 번역하였던 일본 역시 이런 표기의 객관적 타당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지질공원’ 표기를 철회하고 영어 명칭대로 Geopark라고 표기하고 있음.

■ 총선거 특집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 출사표

회의결과 공개… 교류에도 최선

‘컬러풀’ 입후보자 정-문경환 부-김진성

‘컬러풀’ 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는 소통하는 동아리연합회, 소통하는 동아리를 꿈꾼다. 우리가 지켜본 동아리연합회는 타 학생회, 동아리인들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의 색으로 표현할 수 없는 동아리들을 알리기 위해 ‘컬러풀’과 ‘TALK TALK’이라는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고 선거에 임했다. 내년에 우리의 꿈이 이뤄진다면 동아리연합회는 ‘소통’이 우선이 될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이번 동아리회장단들과 여러 단과대학 선거운동본부를 만나며 이야기해 왔고, 많은 의견을 듣고 공약을 완성해 나갔다.

우리가 내년에 발전시킬 공약은 교류, 홍보, 복지, 투명화가 주를 이룬 공약이다. 우선 교류에서는 여러 동아리가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동아리간의 연합활동, 타 대학과의 교류활동 등을 준비하겠다. 홍보와 관련된 공약으로는 동아리와 동아리행사, 동연의 행사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학생회관 TV의 활성화, 동연 월간소식지 활성화, 페이스북을 이용한 동아리 행사 및 동연행사 홍보 등이 있다. 복지에서는 동아리방의 위생을 위한 규칙적인 방역,



‘컬러풀’ 팀 정후보자 문경환(생물학과 3, 왼쪽)씨와 부후보자 김진성(생물학과 3) 씨.

낙후된 시설물의 수리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동아리연합회 차원에서 시설물수리등록, 대동풀이의 예산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동아리에 실비를 지원하겠다. 소통의 우선은 자신이 먼저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투명화공약도 준비했다. 학우들이 최대한 학생회를 믿을 수 있도록 매주 학생회 회의결과를 페이스북에 공지하고, 학생회 임원들의 시간표를 공개하여 학생회사무실이 열려 있는 시간도 공지하겠다.

우리는 기존의 다른 동연들과는 다르게 항상 소통을 통해 동아리를 알리고, 동아리연합회를 알려 예전 동아리연합회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고, 다시 이룩하는 동아리연합회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조직체계 확립… 물품 구입 쉽게

‘하나·하나’ 입후보자 정-정영훈 부-김범훈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동아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입학 한지 얼마 안 돼 동아리에 가입했다.

그렇게 1학년을 동아리와 함께 지냈고 이후 군대를 가게 됐다. 전역을 하자마자 ‘ACCENT’ 동아리 부회장을 맡았다. 부회장을 하며 모든 동아리들을 볼 수 있었고 동아리 간에 통합이 안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같이 동아리 사람들끼리 친해지지 못한다는 것이 매우 아쉬웠다. 그러자기 동아리만 챙기기 바쁜 모습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동아리 연합회에 들어가기에 결정했고 좋은 기회가 생겨 이렇게 부임후보자에 지원했다.

우리의 공약은 크게 3가지이다.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신입생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학기가 되면 과생활로 전향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신입생 홍보에 많이 치중하고 공연을 할 때에 타 분과 동아리에게도 홍보를 할 기회를 주고자 한다.

현재 동아리연합회는 타 학생회에 비하여 체계 면에서 취약하다. 체계를 확립하여 동아리 간에 교류를 활성화하고, 소통



‘하나·하나’ 팀 정후보자 정영훈(생활환경복지학부 2, 왼쪽)씨와 부후보자 김범훈(기계공학전공 2) 씨.

을 원활히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회의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씩 분과 회의에서 말하고 또 분과 회의에서 나온 결과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다루겠다.

학생복지과에서 동아리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저희가 따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겠다. 각종 서류 첨부 및 복잡한 절차 없이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기획안만 있으면 손쉽게 지원하겠다. 대신, 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약용을 막고자 기획안에 대한 기준은 강하게 잡을 생각이다. 그리고 추후 남은 예산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동아리에게 추가 지원을 하겠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안내

1. 경력관리 우수학생 지원

- 대상 : 전학년
- 등록기간 : 12월 7일까지
- 신청방법 : 경력관리 프로그램에 선정기간까지 등록
- 문의 : 취업전략본부 (754-2308)

2. 테마로 여는 학습법 특강

- 대상 : 전학년
- 모집기간 : 11월 20일까지
- 신청방법 : 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 기초교육원 (754-2037)

3. KT&G 기업방문 2차 취업캠프

- 대상 : 3~4학년
- 모집기간 : 11월 중
- 신청방법 :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 취업전략본부 (754-2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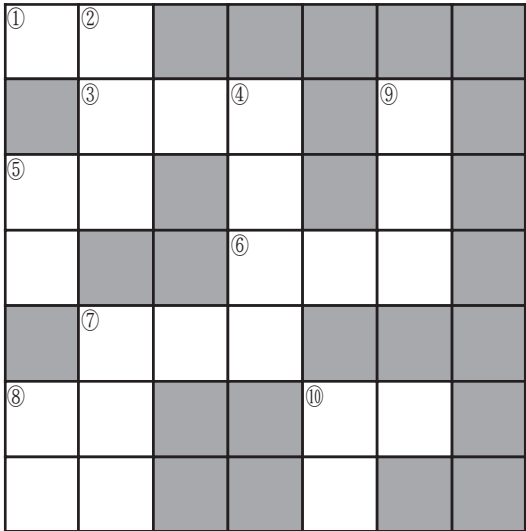
4. 제4회 우수 리포트 공모전

- 대상 : 전학년
- 신청기간 :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기초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문의 : 기초교육원 (754-2037)



제주어 낱말맞추기

제주어 공부도 하고, 2만원 상품권도 받아!



()학과/학부 ()학년
이름 : 연락처 :

제주대신문



가 도 열 쇠

- 1) 표준어 ‘낫’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 3) 표준어 ‘된지다’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달리 ‘뒹끼다’, ‘된지다’라고도 한다.
- 5) 제주에서는 ‘고기’를 ‘○○’라고 한다. 바다에서 나는 것을 ‘바릇○○’라고 하고, ‘소고기’를 ‘썸○○’라고 한다.
- 6) 바늘의 옆쪽에 뚫린 구멍이다. 실을 꿰는 구멍을 제주에서는 ‘○○○○’라고 한다.
- 7) ‘저녀’를 제주에서 이르는 말이다. 달리 ‘전복 따는 여자’라는 의미도 있다.
- 8) ‘중아라’를 제주에서 열컾는 말이다. 여기서 아쁘면 “○○ 아쁘터 이상 낱지 못허키여(○○ 아쁘서 터 이상 낱지 못허했다.).”처럼 말한다.
- 10) ‘수평’을 제주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세 도 열 쇠

- 2) ‘미나라’를 제주에서는 ‘○○○’라고 한다.
- 4) 제주에서 최고의 횡포로 지는 농악대의 바닷물고기는 ‘○○○○’다.
- 5) ‘정성을 다하여’, ‘조심스럽게’의 의미를 지닌 표준어 ‘고아’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그러로 조심스럽게 농아라.”라고 할 때 제주어로는 “그레 ○○ 농으라.”처럼 말한다. 지역에 따라서 ‘고양’이라고도 한다.
- 7) ‘병아라’를 제주에서 열컾는 말이다. 달리 ‘병애가’, ‘병아라’라고도 한다.
- 8) 간장이나 고추장 따위를 넣은 작은 그릇을 말한다. 표준어형과 같은 이것을 지역에 따라서는 ‘중개기’라고도 한다. 제주에서 윗물 먹을 할 때 윗을 이것에 담아 던지며 논다.
- 9) ‘미역의 대가리’인 ‘미역귀’를 제주에서는 ‘○○○○’라고 한다.
- 10) ‘간장’을 제주에서는 ‘○○’이라고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군장’ 또는 ‘물장’이라고도 한다.

<879호 정답>

지	름	떡		고	소	리
		구	듬		도	
	숫	떡			리	
상	강					
	알		주		고	
		그	랑	그	랑	
알	드(뜨)	르	레			

출제: 국어문화원 부설 제주어센터

교수신문



이명곤
철학과 교수

“

나의 행복은 결코 너의 행복을

외면하고선 있을 수 없어...

모든 후보자들이 깨끗하고

정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

‘행복한 한국사회’라는 ‘공동선’을 위하여

<共同善>

가을이 오기가 싶더니 벌써 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하다. 이맘때가 되면 한국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자식들을 위해 노심초사 절에서, 교회에서, 성당에서 그리고 무슨 이름난 계곡 등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며 마음조리는 일이다. 어느 인터넷 기사에서 수는 시험 직후에 울음을 터뜨리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울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보다 사랑이 클수록 보다 고통도 큰 것’이라고 하였다. 아마도 그렇게 눈물을 터뜨리지는 않았겠지만 수천수만의 어머니들이 속으로 그렇게 울고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부모들처럼 그렇게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부모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있었을 학생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아마도 학생은 그 때 만큼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무려 하루 15시간을 오로지 ‘수험준비’라는 중노동을 하면서,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생을 하고서도 ‘죄인 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한국사회가 아니라면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일 것이다. ‘공부’ 외에 모든 젊음의 특권을 희생하면서도 결국 죄인 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천수만 명의 학생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찡찡해 진다. 그 학생들 중에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1년을 다시 반복해야만 하는 학생들도 수천이나 될 것이다.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 오히려 자식에게 큰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까? 부모들의 잘못된 자식사랑이라고 단정해 버릴 수가 있을까? 아니면 잘못된 한국사회의 교육제도 때문이라고 일축해 버릴 수가 있을까? 첫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하러 가던 날이었다. 웬지 가슴이 동하고 마음이 설레는 것이 한편으로는 큰 행복감이 가슴 깊이서 밀려오고 또 한편 웬지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였다. 나의 행복감은 내 아이가 별 탈 없이 잘 자라서 벌써 유치원 학생이 되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있었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는 내 아이가 가야할 유치원이 동양인이 거의 없었던 프랑스의 한 유치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의 근심을 가라 앉혀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지하철의 한 문구였다. 그 문구는 “당신의 아이를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라는 ‘과외’를 선전하는 광고 문구였다. 프랑스의 교육제도 전반에는 ‘함께 가자’라는 모토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도 경쟁은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선의(善意)의 경쟁일 뿐이었다. 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다름 아닌 동료 꼬마들이었고, 이름 모를 그 꼬마들의

부모였다는 사실이 지금도 고마움을 느끼게 한다.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란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았지만, 최소한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란 마음 먹기에 달렸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의 사회, 지역중심의 사회인 한국사회에서는 ‘끼리끼리’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다. 여기에 경쟁위주의 교육제도가 가미되어 ‘내 아이’, ‘내 가족’, ‘우리교장’, ‘우리당(黨)’만 잘 되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가 체질화 되어 있다. 문화적 관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었지만 ‘나의 행복은 결코 너의 행복을 외면하고서는 있을 수 없다’는 진리를 한국사회에서도 인정해야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레아만 헤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이 땅의 어머니들이 없어질 것이다.

올해 가을은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 때 보다도 열기가 뜨겁다. 야당이 ‘단일화’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이내 단일화한 두 진영이 서로를 비난한다는 잡음이 들려오기도 한다. 프로정신은 햇수가 말해주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진정한 프로라면 비겁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모든 후보자들이 깨끗하고 정당하게 선의(善意)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가야만 한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한 한국사회’라는 ‘공동선(共同善)’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만 할 때인 것 같다.

등문칼럼

운명처럼 마주한 방송 카메라 평생 천직이 될 줄이야



고창균
(사)제주영상위원회
제작교육팀장
생물학과 78학번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1983년 3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 초의 암울한 사회 격변기 속에서 학교로 복귀하는 심정은 마치 어린이가 유치원을 처음 가는 것 같은 설레고 들뜬 마음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런 기분도 잠시 우리 동기생들은 응답캠퍼스에서 1년을 공부하고 농수산 학부가 있었던 서귀포 캠퍼스에서 1년을 마쳐갈 즈음 10·26사태가 발생하고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대학은 휴교령이 내려진 가운데 군대 징집을 받았거나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친구들은 너나 없이 다들 군대로 가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해서 군제대를 하고 아라동 캠퍼스로 오니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 캠퍼스와 숫자로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들어선 건물들로 약간 낯선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세삼느낄 수 있었던 분위기는 절없이 까뵌던 1.2학년 때와는 달리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들은 예전의 철부지 까뵌들이 아니었던 것이었다. 공부귀신이 들려 도서관에만 처 박하는가 하면, 실험실을 아예 자기 공부방인양 개조를 해 하버드 공부벌레처럼 생활하는 분위기가 마치 딴 세상에 온 듯 어리둥절함 그 자체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나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들 생활에 동참을 안 하면 웬지 뒤처지거나 낙오자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스포츠용품 파는 곳에서 슬라퍼백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사회진출을 앞둔 예비역으로서의 학교생활은 시작되었다. 이미 반 거렁뱅이 또는 자칭 수도자들의 생활에 점차 친숙해지는 데에도 그다지 오래지 않아 적응하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사회분위기는 지금처럼 취업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처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지역에서 인기 있는 직장들은 몇 군데로 제한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도 만만치 않은 경쟁구도는 만들어졌던 것 같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었던 공통된 상황 중에 하나를 보면 취업 준비생들은 선배들의 사회진출을 거울삼아 진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에 방송사에 취업한 선배들이 몇 분이 있어서 그 분들과 교분을 쌓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과 중의 하나였다. 내가 결국은 방송사 카메라기자로 활동하게 된 것도 그 선배님들의 조언과 격려가 큰 도움이 된 셈인 것이다. 나는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 방송요원으로 선발이 되어 제주MBC 카메라기자로 활동하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만 15년 동안 카메라기자로 한길을 걸으면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별 탈 없이 카메라기자로써 역할을 충실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도 컸지만 또한 아버지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된다. 나의 기억으로는 어렸을 때 사진기가 아주 귀했던 시절, 아버지께서는 목적인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많이 찍어준 것으로 기억된다. 따라서 어려서 부터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지 않았고 또한 아버지와의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은 영상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풍부한 감성을 갖게 하는데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또한 대학교시, 학과의 특성에 따라 식물표본 채집을 자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때마다 사진촬영을 통해 기록하는 일들이 나름대로 나를 카메라기자라는 직종으로 이끌게 된 동기는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라는 환경과 그리고 대학에서의 식물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나에겐 엄청난 행운이었던 것이다. 군대를 다녀오기 전 까지만 해도 대학에서의 공부는 나하고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밀어 내려고만 했던 지난날의 나의 행동이 얼마나 절없고 어리석었는지는 방송사에 입사하고 난 이후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처절하게 느꼈다. 용어 한마디는 물론이거나와 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현상들은 이미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뭐라 했던 것인데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다.

현장에 있는 선배 기자께서는 계속 질문은 들어오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못해 서슴따름 흘리며 애를 먹었던 일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어찌 보면 방송사에 들어와서는 대학 다닐 때 안했던 책들을 다시 꺼내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나마 전혀 모르고 접근하는 것 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남보다 유리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다. 내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은 경험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 하나 필요치 않은 것이 없고, 또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당시 교수님들보다 나이가 많은 중년이 됐지만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큰절을 올리고 싶다. 70년대 후반, 우리가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전교생이 700여명의 인원이었던 대학이 현재는 만 명이 넘는 국제적인 대학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노라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이 이처럼 발전한 것처럼 나 자신도 대학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운명처럼 시작됐는지도 모를 일이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야가 평생 천직이 될 줄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영상이라고 하는 한 분야에서만 한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줬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아무튼 절종노도와 같은 젊음을 불태웠다는 것에 후회 없는 시간이었다고 자부해 보고 싶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학내의 이슈에 대한 주장,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점 등 자유주제로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대학과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신문에 게재된 독자기고에 대해 2만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이름, 학과,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press@jejunu.ac.kr

돌아르방



김동현
여론사회부장

지난 5일부터 2013 학년도를 이끌어갈 총학생회를 비롯해 학생자치기구 대표를 뽑기 위한 총선거 기간이다. 학내에서는 선거유세,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공약이나 이념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마다 달려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약과 관련한 문제들이 보인다.

먼저 공약들이 매번 비슷하다. 총학생회의 공약을 보면 등록금 인하, 전자도서관 신축, 도서관 CCTV 설치 등을 내놓았는데, 이 공약들은 작년에도 담았던 공약들이다. 또 올해 총여학생회의 위안부 팔찌는 고려대 ‘SIFE’ 동아리 등이 모여서 ‘블루밍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 다시 발표한 공약들일 수 있다. 하나 매번 비슷한 공약들을 걸면서 참신성과 다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실천가능하고 특색 있는 선거공약 내걸어야

또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정책 자료집에 넣은 것들도 있다. 총학생회는 취업박람회 실시, 무료 프린트 설치, 총대위원회는 대의원중에 교통카드 가능 추가 등이다. 또 할인 혜택도 매년 비슷한 점포에서 시행하고 있기에 꼭 정책 자료집이나 현수막에 적을 이유가 없다. 더불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공약집에 실은 것도 있다. E-Learning 강의 스마트폰 지원에코 캠퍼스, 학생생활관 의무식 개선은 학교에서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하겠다고 예고된 것들이다. 이렇듯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마치 자신들의 공약처럼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서로 다른 중앙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끼리 공약이 겹치는 것도 있다. 독도 탐방의 경우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둘 다 공약으로 내걸었다. 단선이다 보니 서로 대화를 통해 같은 공약을 실었는지 모르지만 같은 공약을 둘 다 정책 자료집에 넣고, 현수막에 적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렇듯 중앙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을 보면 문제점들이 보인다. 이러한 문제 지적에

‘이공일이’ 총학생회는 “공약은 학생들의 요구가 있는 것들을 집어넣은 것”이라며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행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공약집에 실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좋은일만”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학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며 “총학생회 자료집에 넣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내에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또 이는 비단 중앙자치기구만이 아니다. 단과대학도 마찬가지이다. 단과대학 학생회들도 때론 나오는 공약, 매년 시행하는 공약들이 정책자료집에 실려 있다.

차라리 정책 자료집에는 공약들을 실현화시킬 방법을 게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사진이나 이미지가 많이 보이는 것보다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방법을 게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

또 정책 자료집에 다 담기 힘들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공약을 구체적으

로 알려져 한다고 생각한다.

공약의 사전적 의미는 ‘일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 또는 그런 약속’이라고 칭하고 있다. 즉 제주대 중앙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가 내거는 공약들은 학생들에게 실천하겠다고 알리는 공약들이다. 허울뿐이거나 자신들의 힘으로 실천할 수 없는 공약, 자신들이 내걸지 않아도 시행되는 정책들은 공약집에 담을 이유가 없다.

이제라도 자신만이 내걸 수 있는 공약들을 더 집어넣고 이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실현시킬 건지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 학생들이 그 정책을 보고 정말 필요한 공약이고 실현이 가능한 것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작년에 내건 공약이 이행되지 못해 또 나온 공약의 경우 어떻게 실현시킬지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매년 공약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아닌 ‘이번에 어떤 기발하고 참신한 공약이 나올까’라고 생각나게 하는 중앙자치기구 선거운동본부가 돼야 한다.

독자기고



원병석
사회학과 2

우리들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투표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투표는 곧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이다. 갈수록 국민 투표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 비해 정부와 사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해서 투표는 반드시 행사

대학 부재자투표소 설치 기준 완화 필요

해야할 권리인 것이다. 저조한 투표율 가운데 시간과 거리상 등의 문제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부재자 투표’가 있는데 부재자 투표란,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에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실시하는 제도이다. 부재자 투표의 종류 또한 여러 가지로 나뉘지만, 보통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병원에 입원, 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에게 투표

행사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좋은 방법으로 보이나 부재자 투표인 수에 비해 현실적으로 부재자 투표소의 수가 극히 적은 점은 문제시 된다.

현행 선거법상 부재자투표소는 구·시·군 단위로 1개씩 설치되고, 읍·면·동별 부재자 신고인이 2000명이 넘는다고 인정될 때 그 해당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재자 신고인이 2000명이 넘지 못하면 설치가 어렵다는 말이다.

대학교 내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기 위해선 적어도 대학 재학생의 수가 최소한 1만 명 이상이여야 가능하다고 보인다. 이런 점에서 규모

가 작은 대학의 경우 부재자 투표소의 설치가 불가능하며, 결국 다른 지역의 부재자 투표소를 통해 투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도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했던 5개 대학의 경우, 재학생 수가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대학들이었다고 한다.

투표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이전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부재자 투표소의 수를 전반적으로 늘리고, 부재자투표소의 신고 인정 인원 조건이 2000명에서 500명 정도로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20대의 투표 참여 열기를 높여야 한다.

제주의 상징 야생노루가 유해조수라고?



전호광
수의학과 2

제주에 내려온지 어느덧 1년 반, 제주에서의 삶에 만족스러움을 느끼며 지내고 있다. 그 이유중 하나는 자연과 기암괴석과 귀를 자극하는 시끄러운 소음들로 가득찬 답답한 도심속의 삶을 20년 넘게 해온 내게 별해는 밤과 생각에 잠겨 거닐수 있는 거리, 동식물들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 만족스러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작년 봄 학교를 처음와서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늦은 밤, 예술디자인대학 옆 주차장을 지나 는 노루를 본 것과 교양동 복도에 동지름 뜬 테이블이다. 수의학도가 아니라 지구에 사는 한 생명체로 함께 한다는 것에서 느껴지는 만족감이라고

나 할까. 하지만 최근 이런 만족감이 사라질 수 있을 법한 소식을 들었다.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에서 일부의원들이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에 그것이다. 내용은 최근 노루의 개체수 증가에 따라 적정기간내 적정 수의 노루포획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내가 야생동물에 관심이 있는 수의학도가 아니라 환경에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의 입장으로 바라봐도 이 안건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번째, 노루의 개체증가에 대한 점이다. 물론 개체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존 조사는 일정시기에 일부지역에 대해 실시된 표본조사이다. 개체군의 증가를 보기 위해서는 집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료를 봐야하는데, 이는 여러해 동안 넓은 지역의 추이를 관찰해야 한다. 만약 기존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시기에만 특이적으로 개체가 증가(먹이의 풍부

성 등으로)했고, 전체 노루집단의 개체수는 감소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두번째, 농가보상대책이다. 포획을 하는 이유는 노루개체 증가에 따른 농가피해의 증가 때문이다. 물론 농가피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면 해결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노루의 유해조수 지정’과 그에 따른 포획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한 개체수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획허용이 선행된다면 제주노루는 또 다시 ‘멸종위기종’으로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농가피해에 대한 보상금 확대와 농장 울타리 설치에 대한 지원금 확대, 야생동물 서식지파괴의 최소화를 고려한 도시계획 등 더욱 합리적인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노루에 대한 상징적이미 훼손이다. 제주의 상징인 노루는 한때는 영롱한 존재, 길

(吉)한 존재로 여겨졌다. 이러한 노루가 유해조수가 되어 우리 앞에 서게 된다면 다른지역의 ‘멧돼지’처럼 피해를 주는 불편한 존재로써의 감정을 느끼게 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환경수도를 표방한 제주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실추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민들과 환경관계자들이 수년간 이에 대해 많은 논의와 토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있다. 그만큼 민감한 문제이고 그만큼 해결점이 마땅치 않은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이라는 단편적인 부분만을 판단하여 정책을 펴나간다면 간과했던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심히 걱정이 된다. 한번 파괴된 자연을 다시 돌리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있지 않은가!

